



남원시 '운봉읍소소한 봉사단' 발대식 개최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과 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센터장 이지선)가 '운봉읍 소소한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농촌 돌봄공동체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각계자원봉사가 10명이 참여해 봉사단(단장 손원철)을 결성했으며,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 화장실과 계단 등에 안전바를 설치, 이동 편의를 돕고 사고를 예방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거쳐 총 21가구가 대상 가구로 선정됐으며, 봉사단은 3개 조로 나뉘어 7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8월 중으로 안전바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지사협, 독거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

남원시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아영(young)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을 통해 운정을 나눴다.

이 사업은 생일을 맞은 독거 어르신의 가정에 면장과 협의체 위원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밑반찬 및 생일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생일 어르신은 "1년 전 아배와 사별한 후 홀로 외롭게 지냈는데 면에서 이렇게 반찬도 챙겨주니 생일에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죽산면 은인석 면장, 경로당 애로사항 청취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임 은인석 면장이 지난 16일부터 관내 39개소 경로당과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죽산면이 고향인 은인석 면장이 고향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첫 인사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 점검 및 폭염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며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은 면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년세대에 든든한 디딤돌 역할 되길”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가정 대학생에 장학금 1억6500만원 후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1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탁식에서 연금수급자 가정 대학생에 장학금 1억6,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에게 제공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792만7,105원 이하) 이하이며, 직전 정규학기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이어야 한다.

선발은 한국장학재단이 맡아 '가계소득(60점)과 성적(40점)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자기소개서(100점)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총 110명을 선정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명 증가한 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선발조건과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10월에 발표하고, 장학증서는 11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희망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725명에게 21억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나눔교실 △디딤씨앗통장 후원



국민연금공단은 21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탁식에서 연금수급자 가정 대학생에 장학금 1억6,500만원을 후원했다.

△마음쉼터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여규 복지이사는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 축산단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 기원

생닭 200마리 전달... 근로자 노고에 감사 전해

정읍 지역 축산단체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생닭을 전달하며, 농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축산연합회(회장 김택진)와 한국육계협회정읍시지부(지부장 김종문)는 지난 18일 정읍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닭 200마리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낮선 타국에서 애쓰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전하고,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택진 회장은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이번 나눔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문 지부장 역시 "지역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숙사에는 필리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39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주해, 일손이 부족하고 숙소 마련이 어려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배치되고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민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 운영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흥기)은 최근 황토현농협 여성산악회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은 '즐거움 여행의 Tip'이라는 주제로 패키지여행 주의사항 및 청약철회 기간에 따른 환급금 등 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알기 쉬운 설명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또한 농촌에서 접해보지 못한 음악 콘서트가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에게 옛 추억을 되살리고 무더위에 지쳐 있던 몸을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소방서,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무주소방서에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며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무주소방서에서 알리는 물놀이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 △음주 후 물놀이 절대 금지 △깊은 수심이나 위험지역 접근 금지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이 있다.

아울러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물놀이 장소에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무주소방서에서는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강 △수난사고 관할소방서 신속출동체계 구축 △수난 구조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훈련 강화 등 수난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황산면 남양마을, 유래비 제막식 개최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남양마을에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남양마을 유래비 제막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산면 기관·사회단체장과 마을 주민, 출향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남양마을의 유래와 전통을 되새기고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양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전통과 마을의 뿌리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뜻을 모아 이번 유래비를 건립했으며, 이날 제막식은 유래비 제막과 함께 축하 인사와 기념촬영까지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신수미 황산면장은 "유래비를 통해 남양마을의 역사와 전통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마을공동체가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